이희문
쑹폼
스토리즈 II

강남 무지개

2026.
11.05.
THU 19:30
세종예술의전당



"누나, 저도 누나 같은 가수가 되고 싶어요"

- 1989년, 종로뮤직랜드에서 -

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이
이제야 풀어놓는 비밀스러운 사춘기 이야기.

꿈에 그리던 스타를 만나 자기도 모르게 덜컥 말해버린
찬란한 어느 날의 기억부터
처음 마주한 욕망과 설렘, 성장의 순간까지.

세상의 모든 첫 경험, 어마어마한 사춘기를 지나온
우리에게 도착한 달콤짭조름한
무지갯빛 초대장!